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마음대로 못올린다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여수와 순천,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입주민과 임박예정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물지마시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을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부영 상한선 인상에 여수·순천 갈등...전주시는 고발 국토부 연내 사전신고제 도입...과도한 인상 억제 인상 결정 1개월 전 신고...지자체 검토 후 개선 권고

여수 시민단체 역시 최근 공급한 '여수 옹천 부영아파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 시민협회는 "그동안 부영은 법적인 기준으로 최대치인 5%를 가지고 임대료를 너무 높게 잡았다"며 "몇 년간 고가의 임대료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 3%로 낮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2017년 1월 2.4%기준 보다 비싼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수 부영은 35평 기준 월 임대료가 54만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순천 부영아파트는 같은 평수 기준으로 36만원 밖에 안나온다며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도 순천 지역 부영아파트의 임대료가 3%로 동결된 상태라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임대료와 관련 민원이 제기돼 3%대로 변경됐지만 1년 후가 또 걱정이다"며 "그동안 부영은 계속 임대료를 올리고만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임대료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자체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사후 신고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를 비롯해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사전심사를 할 수는 없기에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매각 속도 내나

채권단, 금호산업 조건 대폭 수용...상표권 사용료 차액 보전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 측의 상표권 요율 및 의무사용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지부진하던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9일 금호타이어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소속 기관 8개사는 지난 7일 부행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매각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 측이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5년 의무사용 이후 15년 사용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에 따른 상표권계약 체결을 금호산업에 요구기로 했다. 단, 금호산업 제시한 대비 상표권 사용료 차액 중 대부분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채권단 측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요율(0.5%)과 사용조건(20년 의무사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밝히면서도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매

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금호산업의 조건을 대폭 수용하여 채권단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전기준 상표사용 요율을 0.5%로 하고 보전기간은 기본 5년과 잔여 15년의 중간값인 12.5년으로 산정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약 3조원)을 기준 미래 지급할 사용료를 일시 선지급(할인율 5%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본권 매각 계약이 종결되고 대금지급 정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정했다.

채권단은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호산업과 상표권 공유권자인 금호석유화학 앞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12일 광주공장에서 열기로 한 노사 간담회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사측에 통보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지난 7일 예정된 주주협의회 상의권 논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노사 간담회 취지를 왜곡하는 등 노사간 대화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간담회 취소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클러스터 수출촉진 상담회 산단공 12일 DJ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방재성)는 오는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광주전남 지역클러스터 수출촉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상담회는 광주·전남, 전북 및 제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호남과 제주지역 클러스터 육성과 수출촉진 등을 위해 17개국 41개사 해외바이어를 초청,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회원 100여개사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방재성 산단공 광주전남본부장은 "수출상담회를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KJ원더랜드는 '한여름 산타마을'로 초대하는 주제로 다음달 10일부터 재개장된다. 지난해 KJ원더랜드 전경.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원더랜드서 신나는 여름방학

다음달 10~25일 무료 관람...금융박물관 '어린이 금융교육'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여름을 맞아 'KJ원더랜드'와 '여름방학 금융교실' 등 다채로운 지역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풍경을 기대하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KJ원더랜드'를 준비했다. 지난해 말 개장해 큰 인기를 끌었던 KJ원더랜드를 '한여름

산타마을로 초대'라는 주제로 재개장한다. 세계 어린이들의 편지를 읽어보실 등 다채로운 지역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한여름의 산타마을 KJ원더랜드는 다음달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평일(주말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또한 광주은행 금융박물관에서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방학 금융교실'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은행 금융박물관에서는 별전, 도량형, 세계화폐 등 우리의 역사,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금융에 관한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해 여름방학 금융교실을 열었다.

광주은행 여름방학 금융교실은 초등학교 3~6학년생 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올해 분양권 거래 30% 증가

전매제한 없어 투자수요 가세...광역시 5곳 평균 15.82% ↑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6개월간 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 중 조세입 구조 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은 제외한 4곳의 분양권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147% 증가해 지방 5대 광역시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3 대책 이후인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지방 5대 광역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건수는 총 2만1100건

으로 전년 동기(1만8227건)보다 15.82% 증가했다.

지역별로 작년 1~5월과 올해 1~5월 분양권 거래는 ▲대전 995건→2459건(147.14% 증가) ▲광주 2053건→2854건(39.02% 증가) ▲대구 4384건→4940건(30.14% 증가) ▲부산 7609건→8559건(12.49% 증가)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11·3 대책 이후 청약 자격 조건 등이 더욱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신중해졌고, 이에 입지가 좋고 입주를 앞둔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여성 비율 22.6%

국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의 직원 100명 중 22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효성ITX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매출액 600대 상장기업 중 531곳의 지난해 남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이 22.6%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최근 5년간 여성 직원 비율은 2012년 21.3%에서 2013년 21.9%, 2014년 21.7%, 2015년 22.5% 등으로 구

준히 높아졌다. 총 여성 직원 수는 2012년 22만7028명에서 2016년 25만4452명으로 2만7000여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여성 비율이 57.7%로 가장 높았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9.1%), 운수업(30.9%)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7.2%에 그쳤다. /연합뉴스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성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진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선택가능합니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엔디나외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혀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